

자연이 만든 냉장고, 풍혈지...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정원으로 지켜야

- 산림청 국립수목원, 현재까지 풍혈지 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국내 주요 풍혈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물상 조사 및 생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풍혈지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풍혈지는 여름철에도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독특한 지형으로, 일반 산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특산식물과 기후민감종이 살아가는 특별한 서식처다.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풍혈지 자생종은 총 1,204종으로, 이 가운데에는 ▲희귀식물 82종(예: 월굴, 흰인가목), ▲특산식물 61종(예: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북방계 식물 212종(예: 돌단풍, 야광나무)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대표 풍혈지인 밀양 얼음골은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여름철 한낮에 풍혈지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20~30도까지 차이가 난다. 이곳에는 총 236종의 식물(희귀식물 8종, 특산식물 13종, 북방계 식물 37종 포함)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꼬리말밭도리의 경우,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이면서 국가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등재되어 보호가 필요한 식물이다. 또한 주저리고사리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식물로, 풍혈지의 보전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풍혈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생태적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탐방로 붐비, 무분별한 출입과 식물 채취 등으로 인해 식물군락이 실제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의성·진안·정선 등지에서는 풍혈지 생태계의 퇴보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러한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 제한 및 보호구역 설정,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생태해설 프로그램 강화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풍혈지가 지닌 ‘생물서식지’와 ‘경관 자원’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아울러 국립수목원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풍혈지를 대상으로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보전 전략을 수립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풍혈지는 이상고온 등의 기후변화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적 피난처이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보전연구과	책임자	과 장	신현탁 (031-540-8951)
		담당자	연구사	김창선 (031-540-8953)



붙임. 사진 자료



사진 1. 밀양 얼음골 주요 식물인 꼬리말밭도리(좌)와 주저리고사리(우)



사진 2. 밀양 풍혈지 현장 조사 사진(열화상 드론으로 밀양 얼음골 조사 (2025.07.24. 오전 11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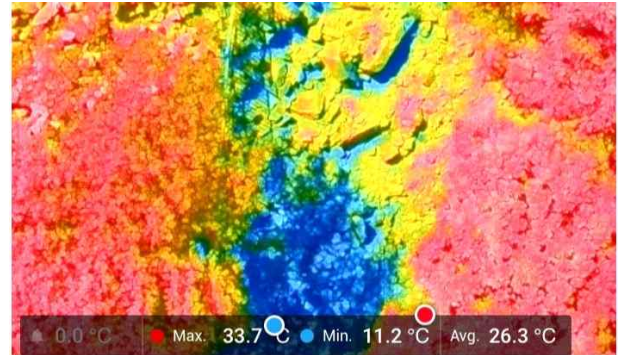


사진 3. 열화상 드론으로 촬영한 밀양 얼음골 전경_내부와 외부가 최대 22.5도 차이 (2025.07.24. 오전 11시 경)



사진 4. 밀양 얼음골 결빙지의 온도는 한낮에도 1도를 유지하고 있음 (2025.07.24. 오전 11시 경)